2021.6.20 주일 2부
나의 방법 (갈2:20)

나의방법 그랬는데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정말 복음받고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다 있다. 저길 가야되는데 말도 안되는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면, 여기에 성전도 있고 초대교회 본부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한다.

예루살렘
바울은 복음 붙잡았다. 이 복음 붙잡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1) 사람 1:1, 10, 11, 12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좋게하고 기쁘게 하는거다. 사람의 뜻이라.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것.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라고 했다.
2) 예루살렘
말하자면 발전된 곳이지요. 예루살렘은 2:2,9 보니까 바울이 자기사역을 다 보고했다. 말하자면 본부와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많다.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내려고 하겠지요. 초대교회에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이 세상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잘 봐야 됩니까? 사실은 어떤 내용인가를 잘 보셔야 한다.
3) 눈
예루살렘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3:1-6 율법이 사로잡았던 현장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 뭔가? 사람의 의다. 행위지요. 사실 분위기가 이랬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 도망갔다. 사실은 베드로가 율법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지요.
- 4:13 학문 - 종
학문의 종이 되어 있다.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데 학문의 종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걱정하는게 앞으로 AI시대 오면 인간이 종되는거 아니냐 이런다.
- 5:1 자유
사람들은 자유를 찾는데 자유가 뭔가? 자유라고 하면서 전부 육체의 소욕을 채운다. 육체가 원하는걸 추구하는거다. 이번주게 오쇼라즈니쉬에 대한 다큐멘터릴 하는걸 봤다. 이 사람이 뉴에이지운동에 아주 영향 미쳤던 인물이다.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 명상하면서 모든 틀을 깨는거다. 억눌렸던걸 풀어주는거다. 그러면서 막 춤 추게하고 소리지르게 하고 그러면서 고요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 사람이 성에 얽매인 것을 풀어준다는거다. 이래가지고 명상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완전 프리섹스를 하는거다. 보통 심각한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갔다온 사람들 보면 게이들 너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까? 인간의 자유가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4) 스스로
결국은 스스로 속고 있다. 본인들은 알고 있다. 갈6:3-7 보니까 속인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사람에게서 난 걸 가지고 산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찾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들어가라*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들어가셔야 한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셔야 한다.

2. 복음 (로마서)
갈3:1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걸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도 누려야 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돼요. 그런 인간이 롬3:23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어떻게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 성경은 말한다. 한 사람 때문에 5:12-14.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되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실과 먹었다. 사단이 속였다. 이래서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롬3:10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 찾는자, 깨닫는 자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13절 보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뱀에게 잡혀있다. 인간의 근본문제 세가지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다.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졸물이 필요하다. 이걸 얻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피조물을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게 보이는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천한만국과 영광을 네게 주겠다 한거다. 그래서 일본현장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짐승의 형상 물고기형상 사람의 형상 만들어놓고 신을 부르고 있다. 우상숭배하면요 그냥 역사적으로 선조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귀신이 옵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걸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신다. 우상숭배 하면 내버려두신다. 그러니 귀신이 사로 잡는다. 자꾸 집안에 와서 귀신이 문제를 일으킨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요 칼 집어던지고 춤 추는 무당한테 뭣 때문에 가겠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우상숭배 하니까 집안에 귀신이 많이 와 있다. 무당들이 그런다. 너네 집에 지금 귀신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해줘야돼. 우선은 평안 오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 이런식으로 자녀에게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노 아래 있다가 죽고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죽을라고 몸부림을 치는거다. 왜냐면, 그 영혼이 안다. 영원한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지옥가야 됩니다. 진짜 고통의 시작이 오게 되는거다.

뭔가 인생이 불안하단 말이야. 이러니까 자꾸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고 율법대로 사는건 좋은거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거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3:21.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이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첫 아담과 그 후손은 다 저주 아래 있다.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다. 처녀에게서 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제물이 돼야 돼요. 3:25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제물이 와야한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에게 이 죄문제를 담당하신거다. 3:7에 이걸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겠다. 의인이다 그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걸 다 끝내셨단 사실을 믿는 자는 용서하시겠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4:13, 4:17. 이 축복은 우리도 위함이다. 4:23-25.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잔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 삼으셨다. 8:14-17. 이래가지고 모든 것의 유업으로 삼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민족현장 살리는 답을 다 주셨다. 11:1-6.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걸 다 끝내신거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거다. 그리스도가 모든걸 다 끝내셨다. 뭘 누리셔야 되냐면, 갈2:20을 누리셔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내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갈5:24에는 뭐라고 얘기했나?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도 죽지만 나도 죽어버린거다. 6:14에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사건은 뭔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왜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걸 끝냈다. 나는 죽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갔나? 아라비라로.
오히려 광야에 답이 다 있다. 복음 안에 답이 다 있고 그 복음 가지고 아라비아로 들어가는거다.

3. 아라비아. 하나님의 것
1) 갈1:12
왜 광야로 들어갔나?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 십자가 생각하라. 묵상할 때 제일 먼저할게 복음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못 박고 세상을 못 박아라. 그래놓고 계시를 기다리라. 내 생각이 어딨고 세상소리가 어딨나 다 끝났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뭔가?
2) 갈2:20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모자란 내 속에 사신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24시 사람에게서 난 것만 생각한다. 맨날 뉴스보고 인간적인 얘기듣고 하는데

언제 이 음성을 듣겠나? 여러분이 정말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한다.
3)갈3:1-6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다.
4) 갈4:1-7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거다. 갈4:1에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자로 축복하셨다. 다 받았다. 양자! 유업을 이을자. 상속자. 이걸 보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한다. 어떻게 깨달아져야 합니까?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한다. 이걸 어디서 깨닫게 했냐면, 아라비아에게 깨닫게 하셨다 묵상하다가. 묵상하다가 모세가 뭘 깨달았나? 저 가나안땅을 주겠다.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깨달았다. 7천인을 찾아라. 기도하다가 깨달아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5) 갈5:1 자유
이때 참자유를 알게 된다. 자유는 아들에게 있는거다. 아직도 내가 모자라고 아직도 내가 뭘 해야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나? 다 내껀데 뭔 집착합니까? 하나님이 모든걸 유업으로 주셨는데요. 집착이 안돼요. 참자유. 애들 다 키웠으니까 자유롭다 그런거 말고요.
6) 마음의 눈
참자유 깨달을 때 마음의 눈이 열린다. 바울이 기도했다. 엡 1:17-19. 1:3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나는 만물 위에 있는 자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구원받은 내가 영적서밋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나구나. 말하자면 여러분을 통해 모든걸 살릴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 사람에게서 난 것만 생각한다. 율법 배워서 하라 하지마라 맨날 잔소리 듣는다. 세상학문 멋지잖아요. 봤더니 사람으로 난 것으로 가득한거예요. 하는 말이 맞는거 같은데 아니다. 이걸 발견하셔야해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
세 가지를 못 박으라. 집중하는 그 시간에 나를 못 박으라. 여러분의 욕망을 못 박으라. 정욕 일어나거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고요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진짜 계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단체로 묵상시켰다니까요. 사십년 동안에 몇백만이 광야에서 묵상했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농사도 못 짓지 건축을 합니까 광야에서? 먹고사는 그런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 묵상하면서 몇 가지 발견하시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게 뭔가?
1) 음성
하나님의 음성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라.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다. 히3:7-14 보세요. 예배드릴 때도 집중 안됩니다. 말씀 딱 시작해서 끝날 때 말씀이 잘 집중이 안되지요. 잘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냐면, 항상 미혹되어 있었다. 우리가 찬양드릴 때 1절부터 4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이 안된다. 1절 부를 때 직장생각하고 2절 부를 때 마누라 생각하고 3절 부를 때 자식생가하고 예배가 온전히 내가 한시간 집중할 수 있는게 엄청 어렵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찬양하는데.

내가 항상 미혹되어 있으니까 내가 싫은거라. 하루종일 잡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내가 싫은거다. 나하고 만나기 실어서 도망가는거다. 이래서 자꾸 중독속에 들어간다. 내가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감사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 안 편한 겁니다. 왜 안 편합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살지 못해요. 하루종일 무의식으로 살아요. 생각의 노예라.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싫으니까 다른거라도 해야 한다. 이래서 아무생각없이 유투브 보고. 이러다 중독되어 버린다. 중독은 뭔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거다. 안하면 미친다. 애들 게임 안 시켜주면 미칠라고 한다. 마약환자 보고 마약하지마 그러면 어렵다. 이 사람들이 내면을 보게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러니까 인생이 중독되어있다 중독의 노예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 끝났다고 고정관념이 생긴다.

이 세가지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다.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24한다는 말은 24 의식 속에 있어야 한다는거다. 의식하고 생각은 다르다. 의식이 뭔가? 지금 허벅지 꼬집어보라. 아! 그런다. 그걸보고 의식이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또 잡생각한다. 지금 일어나는 일어 집중하시는거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의식에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라. 지금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뭔가? 오감이다. 듣는 것 보는 것, 몸에 촉각,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미각이다. 이런거에 자꾸 집중을 하는거다. 그리고 마음생각 있다. 마음 생각도 바라보는거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생각에 잡히지 말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내 마음에 분노 일어나면 어 내게 이런 분노가 있네. 그거에 잡히지 말고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 안에 중독들이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무섭다. 지난주간에 뉴스보니까 젊은사람 세 명하고 개 한 마리 뛰어내렸다.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나? 그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지배한거다. 마귀가 안돈다는 고정관념을 확 집어넣은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정관념 가지고 모든걸 해석한다. 그러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진다.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우린 이거 덮어놓고 계속 메시지 듣고 몸부림친다. 몸부림치지 말고 내 영적상태를 바라보라.

2)누구
내가 누군인가 내 정체성 찾으라. 만나기 싫어도 꼭 나하고 만나는 시간 가지라.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모든걸 유업으로 이을자가 맞다면 끝나는거지. 나는 누구냐? 밥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나?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알바하나?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는게 얼마나 비참하냐? 질문해보라. 나를 만나서. 나를 피하면 안돼요. 진짜 형편없는 나를 만나셔야해요. 나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넌 좋아하는게 뭐냐? 니가 하고싶은게 뭐냐? 애들이 그렇다. 평생 먹고 사는거 위해서 압박을 받아왔다. 부모님들이 그런다. 안 굶어죽으려면 열심히 공부해라. 학교가면 더 압박이 심해진다. 선생님들은 대학가야돼. 서울대 가야돼. 그래야 편안한 삶이 보장돼. 애들이 영어수학하는데 그렇게 집중해. 영어수학이 중요합니까, 내가 누군가 아는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번도 생각 안한다. 나를 아는 시간에 가장 시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묵상 통해서 이 시간을 찾아내시라. 늦지 않았다니까요. 시작할 때 중요한 시작들이 된다. 감추면 안된다. 제가 아는 목사는 열심히 일 해요. 앞장서서 해요. 목사가 기도해야지 뭣 때문에 산업선교가서 일하고 그러냐 내가 그랬다.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런다. 자기는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다. 이거지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 그 친구 중매좀 서라. 그래서 내가 안된다 했다.

3) 실상
우리가 목상하면서 실상 보셔야 한다. 정말 영적인 세계 있다. 왜 나는 영적인세계가 안 믿어집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게 아니라. 내 영적인상태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내 영적인 상태 이래서 목사하고 중직자하면 되겟나? 그래서 정말 계속 이거 아닙니까? 집중에 대한 메시지.

전도자의삶 Check List

전도자의 삶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오늘의전도	아침에 1전도기획 10점								
	자료를 전달하면 10점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제시 10점								
오늘의말씀	복음메시지를 듣거나 읽기 10점								
	하루에 성경 3장이상 읽기 10점								
	성구를 한 절씩 암송 10점								
기도의 내용을 적고 정시기도 10점									
10분이상 호흡 기도 10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10점									
공부, 독서 10분 이상 했으면 10점									
하루의 점수 합계 (100점 만점)									

대안예수교장로회 죽전동부교회
홈페이지 : rt7000.com 스마트폰: rt7000.com/smart
전화 : 070)8887-2691 / 팩스 : 031) 898-2690